



2026. 2. 24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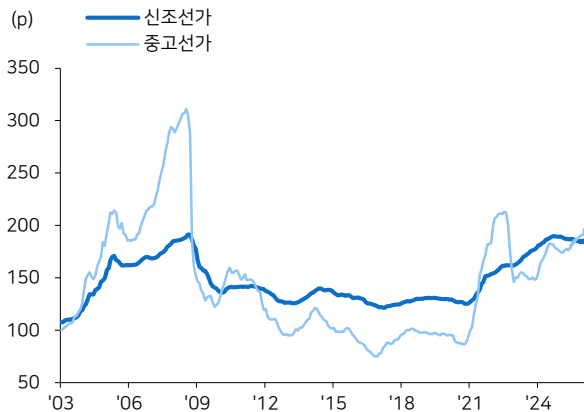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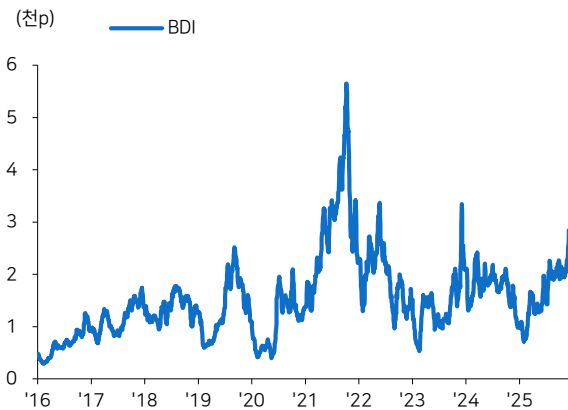
신조선가 182.7p (-0.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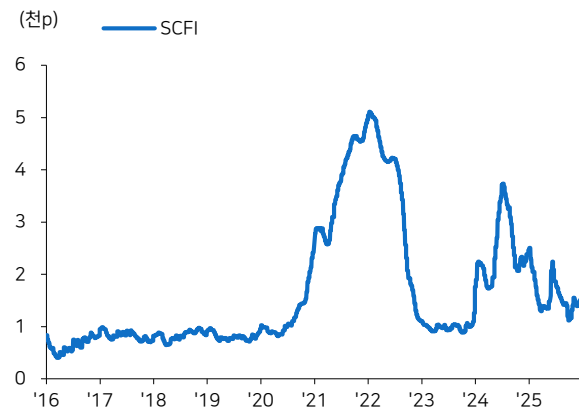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2.13 기준) 431.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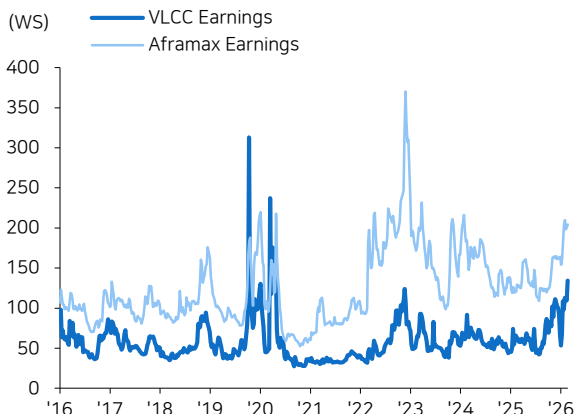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043.0p (+2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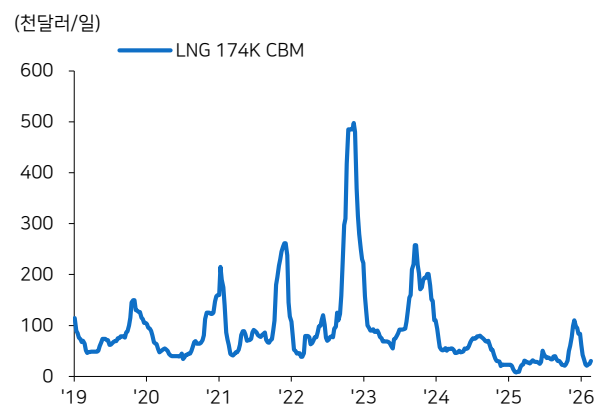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13 기준) 1,251.5p (-15.1p WoW)



VLCC Spot Rate 134.3WS (+24.6p WoW)



LNG Spot 운임 30.5천달러 (+5.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KDDX 상세설계·선도함 계획 확정...HD 현대중·한화오션 경쟁입찰 본격화 (전자신문)

<https://zrr.kr/UIqmya>

방위사업청이 제173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 계획을 의결하며 약 3년간 지연된 사업을 지명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전해짐. KDDX 사업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사업으로, 수의계약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연됐으나 3~4월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상반기 내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알려짐.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수행 경험과 사업 이해도를, 한화오션은 개념설계 이후 축적한 연구개발 성과를 강점으로 제안서 준비에 착수한다고 전해짐.

HD 현대중공업, 필리핀 원해경비함 5개월 앞당겨 인도 (연합뉴스)

<https://zrr.kr/T2RwEC>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해군이 발주한 원해경비함 6척 중 1번함인 라자 솔라이만함을 납기보다 5개월 앞당겨 인도했다고 전해짐. 회사는 함정 인도에 앞서 대한민국 해군과 협력해 사전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필리핀 해군의 조기 전력화에 기여했다고 밝혔고, 이번 조기 인도를 통해 신뢰성과 납기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알려짐. HD현대중공업은 2016년 이후 필리핀 해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해 호위함과 원해경비함 등 총 12척을 수주했으며, 호세 리잘함을 포함해 지금까지 5척을 예정보다 앞서 인도했다고 전해짐.

"신규 선박 17 척·부지 확장"...HD 현대, 베트남 조선소 키운다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nQjhEG>

HD현대가 HD현대베트남조선 생산능력 확대와 친환경 중심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착수하며 베트남을 핵심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고, HD현대에코비나와의 연계를 통해 조선·중공업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해짐. HD현대베트남조선은 2026년 17척 건조와 6억9,100만달러 매출을 목표로 하며, 연간 144만DWT 규모 캐파를 기반으로 이중연료 선박, 컨테이너선, PCTC, 다목적선, 해양지원선 등으로 확대하고 운영 기간을 206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짐. 동측 18.9헥타르 부지 확장과 신규 인력 1,200명 채용, 내부 교육센터 설립, 협력사 9,000만달러 투자 등을 통해 생산성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해짐.

한화오션, 美 AI·로봇에 1억弗 투자 추진 (서울경제)

<https://zrr.kr/VgclMb>

한화오션은 한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화-8090 넥서스 성장(Nexus Growth)' 사모펀드에 1억달러를 출자해 미국을 중심으로 AI·로보틱스·방산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필리핀조선소 생산성 혁신과 선박·군함 건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전해짐. 해당 펀드는 재간접형 구조로 현지 전문 펀드를 통해 글로벌 유망 기술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며, 그룹 내 다른 계열사 참여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미국 조선·방산 협력 확대 의지가 반영됐다고 알려짐. 한화오션은 필리핀조선소 인수 이후 자동화와 AI 기반 설비 개선에 50억달러 규모의 중장기 투자를 추진 중으로 전해짐.

Zodiac Maritime pushes crude tanker newbuilding drive to \$1.4bn (TradeWinds)

<https://zrr.kr/NuEEnc>

Zodiac Maritime는 최근 4개월간 VLCC 8척과 suezmax 4척을 포함해 총 13억4,000만달러 규모의 탱커 신조를 발주하며 투자를 확대했으며, VLCC는 중국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에서, suezmax는 삼성중공업에 통해 건조될 예정으로 전해짐. 회사는 신규 선박 부족과 운임 강세를 활용해 기존 VLCC 3척을 최대 2억3,000만달러에 매각하는 등 자산 매각과 신조 발주를 병행하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고 알려짐. 이와 함께 LNG 이중연료 aframax와 6,000TEU급 컨테이너선 발주도 병행하며 탱커·컨테이너·벌크·자동차운반선 전 부문에서 연료 효율 중심의 선대 확장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짐.

Celsius Tankers confirms single LNG carrier order (TradeWinds)

<https://zrr.kr/GmlUQ3>

Celsius Tankers이 삼성중공업에 180,000cbm급 LNG 운반선 1척을 25,500만 달러에 발주한 주체로 확인됐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2028년 5월 인도 예정이고 이미 용선 계약이 확보됐으며, 삼성중공업에 발주한 기존 LNG 선박들과 동일한 자매선이나 옵션 슬롯은 아니라고 알려짐. 최근 LNG 신조선 가격이 25,000만 달러에 가까웠던 점과 비교하면 이번 가격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전해지며, 2026년 들어 LNG 신조 발주가 23척에 이르며 시장이 강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